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대 지원
- 대산 NCC 통합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원·하청 상생을 통한
숙련인력 고용유지 당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 26일(화)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산공단 석유화학 4사(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원가 부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서산 지역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업종 상황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과 고용 불안 우려를 고려하여, 당초 올해 5월 만료 예정이던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기업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정부의 우대 지원 혜택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위기를 선제적이고 확실하게 극복하고자 지역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인 ‘버팀이음 프로젝트’ 예산 총 60억(본예산 40억, 추가지원 20억)을 투입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확보된 재원은 석유화학 및 전후방 연관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에 집중 활용되어, 기업들이 숙련인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권창준 차관은 HD현대케미칼의 대산공장 생산 라인을 직접 시찰하며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근 경영·고용 동향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의 고용안정 지원 현황을 면밀히 살펴봤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 4사 관계자들은 “중국발 대규모 증설로 인한 구조적 불황 장기화에 중동 분쟁이라는 불확실성까지 겹쳐 현장의 경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 조치가 큰 힘이 되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친환경 라인 증설에 따른 직무전환 훈련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현장에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창준 차관은 “석유화학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뿌리”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체계를 십분 활용해 대산공단이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현장시찰 및 현장간담회 개요
- 2.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 개요
- 3. 버팀이음프로젝트 개요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송은정 (044-202-7410)
			주무관	원승연 (044-202-7411)
			주무관	정준수 (044-202-7409)



□ **개요**

- (일시) '26. 5. 26.(화) 13:40~15:30
- (장소) HD현대케미칼(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1)
- (주요일정) ①티 타임 및 현장시찰(HD현대케미칼) → ②산업동향 및 지원현황 발표 → ③간담회(차관님, 참석자)

□ **참석자:** 약 20명 내외

- (노동부) 차관님, 대전청장,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서산지청장 등
 - (사업장 관계자) 관내 석유화학업체 및 협력사 관계자* 등 10명 내외
- * HD현대케미칼 및 협력사, 한화토탈에너지스(주),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 **세부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고
총 100분 내외			
13:40~13:50	10'	○ 티 타임	차관님, HD현대케미칼 대표이사 등
13:50~14:30	40'	○ 현장시찰	
14:30~15:30	60'	○ 현장간담회	
	(2')	- 기념촬영	
	(5')	- 참석자 소개	
	(5')	- 인사말씀	차관님
	(5')	- 중동전쟁관련 산업동향	HD현대케미칼
	(5')	-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현황	서산지청장
	(35')	- 간담회	
	(3')	- 마무리	차관님

-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등 지원
- (지정기준)** ①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②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③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정 가능
 - * ① 재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 ② 주된산업: 주된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개월 연속 감소
 - ③ 선도기업: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 ④ 예외조항: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지정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지정기간)** 최대 12개월
- (지정현황)** 여수·광주 광산구('25.8.28.~'26.8.27.), 포항·서산('25.11.21.~'26.5.20.), 울산 남구('26.1.12.~'26.7.11.), 광양('26.2.13.~'27.2.12.), 인천 동구('26.4.16.~'26.6.30.)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우대지원사업 】

지원사업	구분	우대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80% · (대규모기업) 휴업수당의 60%~7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고 지역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 시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단가의 130% · (1,000인 미만 기업) 기준단가의 80% · (1,000인 이상 기업) 기준단가의 7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지원비율	· 5년간 500만원 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및 II유형 중 특정계층 지원을
국민취업지원제도II	소득요건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동안 퇴사한 실직자를 취업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소득요건 면제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 1인당 총 2천만원(월 2백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 1인당 총 3천만원
	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상환 / 1년 거치 4년 상환 / 2년 거치 4년 상환 / 3년 거치 5년 상환 中 택1
	소득요건	· 중위소득 판단 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
체불근로자생계비용자	대부한도	· 1인당 총 1.5천만원

- **(사업목적)** 통상환경 변화, 재난, 산업구조 전환 등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 발생 시 고용둔화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예방
 - 고용위기·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관할 광역자치단체 대상(우선 선정) 유형별 맞춤형 지원 패키지 제공(금년도 예산 450억원)

- **(지원현황)** 7개 지역 380억원 지원 확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주(광산구) 40억, 울산(남구) 20억, 인천(동구) 40억
 -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전남(여수) 80억, 경북(포항) 80억, 충남(서산) 60억, 전남(광양) 60억

- **(주요사업내용)** 타 지역에 안내, 신규 지원 시 지역 간 정합성 유도
 - * 전남 여수 등 7개 지역 고용·집행 상황 분석 등 모니터링 운영비 각 1억 원 내외 배정
 - ① (광주) 고용유지 조치 대상자 생계비 최대 300만원 지원(9억), 재직자 근속장려금 최대 200만원 지원(9.1억) 등
 - ② (충남) 일용노동자 및 화물운송업 종사자 주거·교통비 등 50만원 지원(27억), 이·전직 노동자 재취업 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12억) 등
 - ③ (전남^{여수}) 재직자 및 화물운송업 종사자 주거·교통비 등 50만원 지원(30억), 비자발적 실직자 생계비 50만원 지원(19.7억) 등
 - ④ (경북)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300만원 지원(36.3억), 재직자 주거·교통비 등 최대 50만원 지원(13.5억) 등
 - ⑤ (울산) 재직근로자 주거·교통비 등 50만원 지원(12억), 석유화학(전·후방산업) 신규취업 또는 재직근로자 이·전직 수당 최대 200만 원 지원(5억) 등
 - ⑥ (전남^{광양}) 철강(전·후방산업) 일용노동자 대상 건강증진비 등 50만원 지원(40억), 퇴직자 심리상담서비스·긴급생계비 지원(19억) 등
 - ⑦ (인천) 철강(전·후방산업) 비자발적 실업자 재도약 지원금 50만원 지원(4억), 철강(전·후방산업) 재직근로자 주거·교통비 등 50만원 지원(35억)

- **(향후 계획)** 현장 모니터링 및 신규 지정지역 지원 신속 추진